

KOREA NEXT, JAPAN NEXT

새로운 동아시아 세계 창조를 위한 한국과 일본의 젊은이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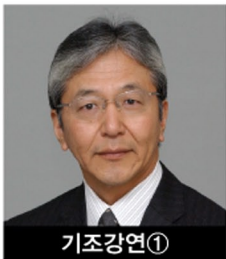
개최일시: 2012년 3월 27일(화) 10:00~16:30 / 장소: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라 불립니다. 아시아의 미래를 전망할 때 한국과 일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기획에서는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난 지 1년이라는 시점을 감안하여 동아시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양국의 젊은이들이 담당할 역할에 대해 논의합니다. 일본정부의 제기를 바탕으로 심포지엄에서는 국제정치학 관점에서 양국 관계를 살펴보고, 워크숍에서는 연세대학교, 리츠메이칸대학, 리츠메이칸 아시아태평양대학 학생들이 “쿨재팬”, “쿨 코리아”의 매력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게 됩니다.

심포지엄

Korea-Japan Relations and its Development after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한일관계와 그 발전을 위하여”

시간: 10:00~12:00 / 장소: 연세·삼성 학술정보관 6층 장기원국제회의실



기조강연①

야부나카 미토지 교수
(리츠메이칸대학교 특별초빙교수)

1969년부터 일본 외무성 근무.
시카고 총영사, 외무성 아시아태평양국장,
외무심의관 등을 거쳐 외무사무차관 역임.
한국대사관 근무 경력도 있다.
2010년 퇴임 후 외무성고문,
리츠메이칸대학 특별초빙교수 취임.



기조강연②

김기정 교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평화 및 안정보장학, 북아시아 지역학,
한국의 외교정책과 한반도통일학,
동아시아 국제역사학, 미국 외교정책과
한미관계에 관한 연구 등.



코데네이터

김상준 교수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일본센터소장)



개회사

가와구치 키요후미 총장
(리츠메이칸 총장)

정원 150명 무료입장 (사전등록은 필요없습니다.)

*심포지엄 청강학생 여러분께 일본 도시락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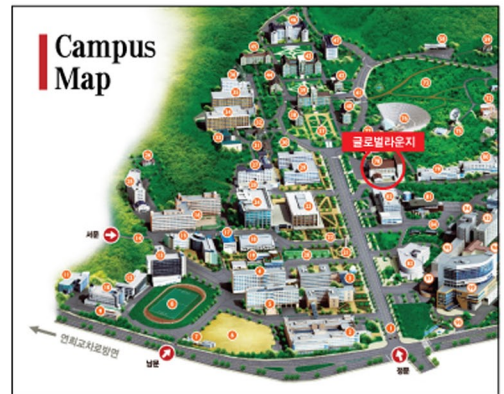
일본문화 소개 이벤트 JAPAN NEXT, COOL JAPAN

시간: 12:00~16:30 / 장소: 글로벌 라운지

무료/사전등록 필요없음

일본의 “지금” 을 상징하는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일본문화와 일본 대학생활을 소개합니다. 선착순 100명에게 일본 도시락도 준비합니다! 설문조사에 응하고 일본의 “음식문화” 를 즐겨보자!!!

일본에서 인기 있는 과자도 많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주최: 일본국정부/연세대학교/리츠메이칸대학/리츠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